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2



## 군위군 의흥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이 제3기 군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무

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위촉된 의흥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단체 회원, 주민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손숙희 면장은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1년 새↑ 오피스텔 매매↓

## 아파트 제한 기간 완화 영향 오피스텔 고금리 집값 하락

대구의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17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피스텔 매매는 1년 새 33% 감소했다.

### ■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구의 분양권 거래량이 5210건으로 전년 1907건 보다 1.73배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서구가 1052건으로 가장 활발했다.

중구 1022건, 동구1001건, 달서구 622건, 수성구 527건, 달성군 463건, 북구 409건, 남구 114건 순이다.

대구 분양권은 2020년 9월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제한 확대' 조치에 따라 3년간 전매가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방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6개월로 완화됐다.

2020년 1만5677건에 달하던 분양권 전매는 전매 기간이 강화된 2021년 4248건, 2022년 1907건으로 각각 59.7%, 81.9% 급감했으나 규제 완화된 지난해에는 50.6%로 감소폭이 줄었다.

고금리와 1만가가 넘는 미분양 체계가 지속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효과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완화된 직후인 지난해 5월

(591건), 2021년 3월(717건) 이후 26개월 만에 500건을 넘기는 등 거래가 활기를 찾는 듯했으나 11월부터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333건으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8개월 만에 400건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어 12월에는 245건으로 11개월 만에 300건 대마저 꺾이는 등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매 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가 몇개월 가량 늘어났지만 "하지만 고금리와 미분양 물량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하반기들어 거래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 ■ 오피스텔 매매 1년 새 33% 감소...

대구지역의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매매 거래량은 2만6696건으로 전년(5만4558건)보다 38% 줄었다.

대구의 거래량은 384건으로 전년(571건) 대비 33% 감소했다.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이 오피스텔 투자 수요를 꺾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직방 측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의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 호황기 1~2인 가구 증가와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 전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치킨·피자 전달

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지상가변영회는 최근 '우리지역 아동센터 치킨·피자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에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우리지역 아동센터 치킨·피자데이' 사업은 구지면 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지상가변영회가 함께 매달 1개소의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40만 원 상당의 치킨·피자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사진=달성군 제공)

## 경북농업기술원, 국내 화훼시장 트렌드 선구자...

### 선라이즈엔디, 크림엔디, 플럼엔디 3품종개발육성 품종보호 전격출원

경북농업기술원이 국화신품종 개발로 국산화에 앞장선다.

경북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가 개화기간이 빨라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국화신품종으로 '선라이즈엔디', '크림엔디', '플럼엔디' 등 3품종을 육성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구미화훼연구소가 육성한 국화신품종을 시범 재배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농가에 보급하면 경북화훼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국내 화훼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국화란 소국의 일종으로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형태의 국화다.

절화국화는 2022년 전국 재배면적 297ha, 생산액 393억 원으로 화훼류 중 지배면적이 가장 크

고 생산액도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작목이다.

절화국화 중 국내에서 재배하는 스프레이국화는 대부분 외국 품종(66%)으로 농가사용료 부담이 높은 실정에서 구미화훼연구소는 국내 재배환경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해 왔다.

출원한 품종 '선라이즈엔디(Sunrise ND)'는 황적색의 복색 홑꽃 화형으로 착화수(작은 꽃의 수)가 18.3개이며, 개화소요일수가 7주 정도 더 짧은 것이 특징이다.

'크림엔디(Cream ND)'는 흰색의 꽃잎과 선명한 녹색의 화심에 돌보이는 홑꽃 화형으로 착화수 11.4개, 개화소요일수는 7주 정도이다.

'플럼엔디(Plum ND)'는 자주색의 겹꽃 화형으로 착화수가 9.2개, 개화소요일수는 7.5주 정도이며 고온에서 화색 탈색이 적다.

연구소는 "이들 신품종은 소비자가 기존에 선호하던 흰색(33%), 노란색(29%)에서 최근 선호도가 반영된 보라색(8%), 복색(7%)의 품종으로 빠르게 변하는 추세와 다양한 화색에 대한 기대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생명·안전 존중 사회로"



218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

218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

218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

218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밝혔다.

단체는 "21년이란 오랜 세월이 흐르며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하철 참사의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 있다"며 "그러나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심각한 부상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사의 기억은 단지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픈 기억을 지우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픈 기억을 딛고 생명·안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구시가 약속한 218추모공원과 추모탑은 여전히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조형물로 각

각 불리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공식 면담 요청할 것이고 21주기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오늘부터 18일까지 218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앞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께 대구도 시청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에 19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전동차가 모두 타고 빼내던 남았으며 대구 달서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로역도 불에 타 2003년 12월 30일까지 복구 위해 영업을 중지했다. 황태용 기자

## 수성구, 치매 환자 단기 쉼터 프로그램 운영

### 환자 보호자 가족 모두 건강 행복한 삶 영위...



대구 수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환자 단기 쉼터 프로그램 '기억튼튼! 인지튼튼!' 참여자들이 강사와 함께 인지 훈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치매환자 단기 쉼터 프로그램인 '기억튼튼! 인지튼튼!' 1기 과정을 운영한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억튼튼! 인지튼튼!'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 환자들이 오후 시간 보건소를 직접 방문, 다양한 인지 활동에 참여한다.

일상생활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지훈련, 회상훈련, 실버 레크리에이션, 가족공예, 생활건강제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3개월간 주 3회씩 총 37회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는 단기 쉼터 프로그램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가정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치매 환자에게 다양한 인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환자와 보호자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단기 쉼터 프로그램 2기 과정은 고산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5월 초에 시작해 7월 말까지 운영하며, 오는 4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조미경 기자

## 초등 영어 방학캠프 인기 달성교육재단 수료식 가져

달성교육재단이 마련한 초등영어방학캠프 수료식이 13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료식에는 지난 4주간(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캠프에 참가한 학생 50명과 가족들, 재단 이사장, 군의원 및 캠프 관계자들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재훈 재단 이사장은 "달성군은 초등영어 방학캠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영어 교육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덜고 아이들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는 교육도시 달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료식은 학생들의 신나는 사전공연으로 시작되어 △수료증 수여 △새내기 격려사 △스플리닝 활동 영상 △학생 대표의 영어 스피치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로 선발된 2명의 학생은 캠프 참여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유창하게 영어로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조여은 기자

## 동구청, 취약계층 '법률홈닥터' 큰 호응

대구 동구청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법률홈닥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구공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상주,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동구청은 법무부로부터 10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법률상담 391건, 법률문서 작성 13건, 구조안선 107건, 법교육 등의 성과를 기록해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내방 또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운송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철우 경북지사, 전 직원에 청렴서한문 발송

이철우 경북지사가 청렴특별도 경북도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 동참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중심되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청렴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올해도 나부터 앞장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발붙일 곳 없는 청렴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렴서한문에는 △도지사의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청렴특별도인 경상북도의 위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의 동참 유도 △4년 연속 권익옹호위원회 청렴도평가 상위권 달성에 대한 공직자 격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성용 기자

## 대구시의 봄...15년 이상 공동주택 새단장

새단장 대상단지 1274개  
거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



대구시가 15년 이상 사용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구지역 새단장 대상 단지는 총 1274개 단지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새단장 8개 단지, 기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새단지 499개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 중인 일반적 유지관리 272개 단지, 재건축 유도 495개 단지로 예측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 공동주택 새단장 기본계획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한 고밀도 단

지를 지양하기 위한 계획과 기본방향을 담은 ‘공동주택 새단장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새단장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개선한다.

재건축 사업에 비해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절차도 간단해 최근 각종 규제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양호한 공동주택이다.

새단장 시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새단장 기본계획에는 계층의 배경 및 목적 △새단장 대상 공동주택 현황 △새단장 주요 예측 △세대수 증가형 새단장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공성 확보 방안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고밀도 아파트 조성을 예방한다. 무엇보다 단지 주변도로 확폭 및 개방형 주차장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만의 특성을 반영했다.

기본계획상 새단장 유형의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세대수 증가·맞춤형 새단장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경북청, 고속도 귀성길 점검

경북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중부내륙 등 고속도로 4개 노선에 대한 귀경·귀성길 교통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12일 헬기에 탑승 후 중부내륙, 광주대구, 중앙선 등 주요 고속도로 교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7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 등 혼잡한 시설의 소통관리를 강화했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8·12일까지는 2단계 기간을 설정,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 확보에 집중했다.

경북지역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무 순찰차를 증가시켜 교통사고 발생 등 우발상황 발생에 대응하는 비상근무를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정체가 심한 경부선 금호분기점에서 북대구 나들목 구간에 임시 갓길차로 운영과 중앙선 춘천 방면 질곡·다부나들목 및 중부내륙 창원 방면 김천 분기점에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지·정체를 최소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등 교통 안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의성청년딸기 글로벌GAP 인증

의성군이 농업회사법인 ㈜딸기 공선회가 글로벌GAP 인증을 취득했다.

글로벌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은 유럽에서 개발된 제도로 전 세계 130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품질뿐만 아니라 재배 환경, HACCP,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종합관리(ICM) 등 인증 기준을 포괄해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제 농식품안전 관리 인증제도이다.

의성군 딸기 공선회는 ‘의성청년딸기’의 생산 품질 및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법인이다.

2020년부터 이웃사촌시범마을 연계사업을 통해 의성군에 정착한 청년 18명으로 구성했다.

고품질 의성청년딸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농업인 42명이 의성 지역 10.3ha에서 의성청년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첫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베트남 및 태국 수출 검역 단지 지정 승인을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글로벌 GAP인증 획득으로 의성청년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대구교육청, 늘봄학교 교사 70명 채용 완료

질 높은 돌봄혜택 실현  
사전 연수 후 학교 배치

대구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70교에서 늘봄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사 70명을 채용 완료하고 각 학교에 배치한다.

대구교육청은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난 1월 각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 행정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했다.

지난 8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1학기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사 채용을 완료하여 기존 교사들의 늘봄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교육청은 13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늘봄학교 기간제교사와 늘봄지원센터 직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연수에서 신학기 늘봄학교 시작을 위해 2월부터 준비해야 할 업무부터 연간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사항까지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연수를 받은 후 늘봄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학부모수요조사 등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은 늘봄학교 업무 담당 기간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적응해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직원과 개별 학교를 매칭·지원한다.

센터 직원들은 기간제교사의 행정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늘봄학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은 줄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돌봄 혜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교육·돌봄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경북교육청, 도내 초·중·고 대상 국제교류 운영 학교 116곳 공모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자질 키울 기회 제공

경북교육청은 13·9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4 국제교류 운영 학교 사업 희망학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K-EDU 원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제교류는 지식·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나 개인·사회·집단·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각각의 이익 혹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수업 나눔 교류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교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와 실천 교류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 부모나라 방문 교류 등 학교 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주제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국제교류 운영 학교로 선정된 116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공모 신청서 접수는 29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김성용 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영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월성동 환경보호협의회, 새봄맞이 환경정비활동

경주시 월성동 환경보호협의회원들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월성동 낭산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비에 나섰다.

지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우리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회 회장은 "오늘 환경정비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며, 아침 일찍부터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월성동장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우리 지역환경정비에 앞장서 주시는 월성동 환경보호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깨끗한 월성동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양남에 150억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건설

해안 경관 즐기는 새 관광명소 탄생 지역 경제 활역소

경주시 양남면 일대가 확보된다. 이곳에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1구간 145억원, 2구간 5억원 등 150억원에 투입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해파랑길이 보다 안전하게 국토종단과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어 인접한 울산·부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 확보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준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고, 확보한 예산은 새로운 관광형태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이 올해 신규 국비사업으로 반영됐다.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은 경주 동해안 해파랑길 코스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한다. 먼저 1구간은 양남면 수렴리 일대 지경항부터

관성술밭해변까지 길이 820m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지상 4층 지하 1층 399㎡ 규모의 전망대와 1600㎡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만든다. 2구간은 양남면 읍천리 일대다. 길이 250m 탈해왕길 해안산책로로 조성되며 이 곳에는 파고라와 수목길 등으로 꾸며진다.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사업은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 사전 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소관위를 수차례 찾아 사업 당위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도 한 몫했다. '해안내륙발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내륙에 비해 낙후된 해안권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권역별 발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 개발이 필요한 해안 지역에 대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제공한다.



경주시, 설 명절에도 2025 APEC 경주 유치 홍보 열민 홍보 활동을 했다. 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설 명절 연휴에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열민 홍보 활동을 했다.

경주시, 중소기업 경영난에 숨통 틔운다...

올해 2850억원 융자지원

경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기반을 위해 올해 총 2850억원 규모의 통근 융자 지원을 단행한다. 95억 원의 사업비로 2~4.5%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운전자금(1200억원, 이차보전 3%) △경북도 운전자금(450억원, 이차보전 2%)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200억원, 이차보전 2.5%)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1000억원, 이차보전 4.5%)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경주시 운전자금 융자추천 금액은 기업당 1억5000만원~7억 원까지다. 신청은 지펀드 사이트(www.gfund.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매일 1~10일까지며, 자금소진 시 종료된다.

경주시 운전자금은 대출이자 3%를 최대 2년(종료 후 1년간 신청 유예)까지, 경북도 운전자금은 대출이자 2%를 1년간(매년 신청 가능) 지원한다. 시는 경북 도내 최초로 IBK기업은행과 협업체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 지원사업도 한다. 동행지원은 신용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추천 금액은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다. 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2.5%를 보전하고,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연 1.2% 이내 지원한다. 신청은 먼저 경주시 내 기업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금소진 시 종료된다.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운전자금은 1000억 원(예정)의 융자규모로 4.5%(예정) 대출이자

를 오는 8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올 7월 협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까지 경주시와 한수원, NH농협은행의 상호협약으로 추진됐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10억원 이내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2년 연속 수혜 시 1년 유예의무기간이 있다.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과 경주상생협력기금은 기존 경주시·경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업투자지원과(054-779-6253)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경주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간 소통과 애로사항을 경청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펼쳐 나간다.

경주시, "농어민수당 받아주세요"

농·임·어업경영체 경영주대상 연 60만원 농어민수당 지급

경주시가 새달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 먼저 모바일은 오는 16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모바일 앱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하며,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에서 도민증을 발급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2022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내 주소(거소)를 두고 같은 날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30만원씩 경주페이로 수당이 지급된다. 경주시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신중년 채용 업체 인건비 월 최대 70만원 지원

경주시가 2024년 경북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신중년 고용지원 유형에 선정돼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사업유형은 교육훈련, 취업연계, 사·군 간 컨소시엄 등의 일반사업과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2가지로 나뉜다. 시는 올 4월부터 12월까지 40~64세의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군수**는 14일 오전 일일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년 일일면 노인일자리 발달식'에 참석한다.



청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사회복지시설에 온정 전해

청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 3개소(아름다운실버타운, 청송국민노인종합센터, 태양의집)를 방문해 쌀, 라면 등을 전달했다.

청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는 건설, 교육, 의료계 종사자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반찬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설 명절을 맞아 삼색나물무침과 탕국을 시작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전수했다.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강필여회장은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가족 건강에 꼭 필요한 식생활 지식을 함양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설 명절 새해 복 꾸러미 전달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장애인들과 온정을 나누는 새해 복 꾸러미 전달 행사를 5일부터 3일 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신설된 복지지원사업으로 소외된 독거·저소득 장애인 20가정에 건어물세트를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물품을 받은 박 모씨(70세, 여)는 "외롭고 쓸쓸한 명절에 복 꾸러미를 들고 찾아와주셔서 새해는 잘 보낼 수 있을 거 같고,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 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산소카페 청송군, 문화로 미소짓는 상생경제 실현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와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을 전략과제로...상생경제 실현

청송군은 살기 좋은 청송 건설을 위해 갑진년 벽두부터 팔을 걷어부쳤다.

민선8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로 미소짓는 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경제 분야에 예산 406억원을 편성했다.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이라는 전략과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 문화예술 활성화

군은 문화예술 활성화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청송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해소 및 문화수준 향상을 통해 문화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맞춤형 문화교양강좌,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예술단체의 대주민 문화예술활동 참여 프로그램인 문화예술인 아이디어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으로 재구성된 남관생활문화센터 남관미디어아트홀, 문화공원 등의 전시공간 및 복합문화공간을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문화공동체 관계망 형성 및 생활문화 활력을 촉진시켜 나간다.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인 청송백자를 주제로 하는 청송백자 축제는 금년에도 청송백자의 우수성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청송사과축제와 더불어 지역문화관광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간다.

또 청송문화제, 청송특화공연, 그밖에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청송을 구현해 나간다.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청송군은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어울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안덕면 방호정 등 훼손된 문화유산을 보수·복원하고, 기록화 사업 및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예정이다.

찬경루 등 보물 3개소에 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유산의 상시관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로 민간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우수 문화유산을 조사·발굴하여 국가·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유산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숨쉬며 함께 향유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문화유

산 활용사업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유산 주변정비와 덕천마을 등 문화유산 주변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자원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이다.

### 체육 시설 확충

산악스포츠도시로 입지를 구축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힘쓴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1월 개최한 2024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와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페스티벌 대회에 이어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로 16개국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외 2024년 전국동계체전(아이스클라이밍), 산악자전거대회(4월), 전국모터사이클 챔피언십(4월), 청송사과트레일런(10월) 낙동정맥등반대회(11월) 등 사계절 산악스포츠 대회 개최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전국 고등부 축구리그, 대한배드민턴 협회장기 전국총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중고), 청송사과배 전국테니스대회, 청송군수기 검도대회, 화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와 각종 중·소 규모의 대회 개최로 지역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산남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진보면 농업인파크골프장 조성 등 읍면별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물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군민 생활편의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한 군민 생활편의 도모에 노력한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청송사랑화폐를 전년과 같은 700억원 규모로 연중 10% 할인 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도 26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11억 규모의 현서면과 안덕면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사업비 94억) 또한 추진해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이 참여 문화예술 활성화로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며, 각종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는 물론 주민이용 스포츠시설 확충 및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릉군수, 경북도지사 면담 주요 정책안 건의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의 광면적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안 건의를 위해 지난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경북도의 지원과 더불어 도서지역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 종합발전계획 추진 시 도비 지원을 8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울릉도를 싱가포르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도지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해 울릉군의 K-싱가포르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道) 차원의 정책 영역에 대해 상호협업 및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영덕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성료

영덕군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한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영덕읍시장과 영해면제시장에서 진행됐다.

영덕읍시장의 경우 은누리상품권 소진율이 92%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영덕읍시장 상인회는 "지역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번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더해져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설 연휴 박진감 넘치는 청도소싸움, 관람객 함성 터졌다

### 온 가족이 즐기는 민족 고유 전통놀이 자부

갑진년(甲辰年) 새해 청도소싸움경기장은 관람객의 함성이 터졌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경기장은 첫 경기부터 대박을 터뜨렸다.

설 연휴 토요일 양일간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은 1만 2000여 명으로 공사는 집체했다. 매출은 올해 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 이후 최고 매출인 6억 7100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설 명절을 맞이해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아이들이 1톤에 육박한 싸움소와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 경기에 환호의 박수를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놀이임을 자부했다.

특히 이번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설을 맞아

소싸움경기장을 찾아온 고객 중 온라인 우권발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액운을 막고 건강과 재물을 불러오는 소고뚜레 선물도 증정했다.

이은희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청도소싸움경기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청도소싸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양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의소득 활성화 박차

#### 습식상품개발 및 생산 지원으로 제품 다양화 기대

영양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산물 가공창업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지원으로 농가 농의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22년~2023년 농산물 상품개발기반조성사업으로 습식상품개발실을 증축했다.

현재 습식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액상차, 잼류 등의 품목제조보고를 통해 잼 제품 3종(사과잼, 당근잼, 블루베리잼)을 올해 처음으로 생산했다.

이번 생산은 영양군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단순 농산물 판매를 넘어 가공제품 판매를 통한 농가 농의소득 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잼(영양가 사과잼, 당근잼, 블루베리잼)을 직접 가공한 조미료(영양가 대표)씨는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허가 절차 등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한 창업준비 및 제품개발 과정과 생산 지원까지 1년 동안 준비하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용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공시설 지원으로 가공창업 농가의 육성과 농의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 제5호 고액기부자 탄생

#### 울릉 출신 이재석(쥬대성금속 대표이사)



지난 8일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제5호 고액기부자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이재석(사진) (쥬대성금속 대표이사)로, 울릉 출신의 기업인이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쥬대성금속은 스테인리스 파이프, 스테인리스 앵글, 우수관&핸드레일의 원자재 부속 등을 취급하는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업체다.

이재석 대표이사는 "울릉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살기 좋은 울릉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부

의 뜻을 전했다. 그는 초·중학교를 울릉도에서 졸업했으며 섬 지역인 울릉에 큰 태풍이 덮쳤을 때에도 수해 복구에 기부의 성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선행기부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히 여긴다"며 "울릉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이다.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담례품으로는 오징어, 호박엿, 명이절임, 울릉사랑상품권, 돌미역 등이 있다.

###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박남서 영주시장은 14일 오전 영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주대우 유망선·수상레저 운영관리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영천시 드림스타트  
책가방지원, 첫걸음 응원



영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드림스타트 예비 초등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책가방 및 입학준비물을 지원했다.

이번 책가방 지원 프로그램은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책가방 세트와 학용품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책가방을 전달받은 한 학부모는 "아이의 선물에 마음에 드는지 한참 동안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설렐다."라고 기쁜 소감을 전했다. 최은하 기자



#### 의성소방서,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의성소방서는 지난 6,7일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따뜻한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더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에는 의성군 안평면에 소재한 의성시니어요양원을 방문했고, 7일에는 의성군 금성면의 금성산공동생활가정에 방문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전달했다. 박재성 기자



####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춘양목봉사회 아동내의 후원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춘양목봉사회는 지난 8일 설 명절을 맞아 봉화군 드림스타트 아동 16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아동내의를 후원했다.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춘양목 봉사회는 영동선에서 근무하는 기자역 직원 50여 명이 자발적인 사랑의 성금으로 사회공헌활동 재원을 마련해 명절·연말연시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임정혁 춘양관리역장은 크지는 않지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전상기 기자



## 영주 새해맞이 한마당, '신명과 흥' 더하며 성료

### 마당극, 길놀이·전래놀이·운세한마당 등 볼거리·즐거거리 풍성 방문객 연일 북적

영주시 선비세상 '새해맞이 한마당'이 설 연휴 5천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신명과 흥'을 더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인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선비세상에는 '희망찬 청룡의 해'를 주제로 열린 새해맞이 한마당을 즐기러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졌다.

설날인 10일 진행된 '희망 길놀이 한마당'에

는 방문객들도 함께 참여해 '소백풍물'의 신명나는 가락을 따라 선비세상 일대를 한 시간가량 누볐다.

이번 길놀이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밟으며 액운을 물아내고, 비나리를 부르며 희망을 기원하고 떡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지난 10~11일 한음악당에서는 사라재가는 전통 연희의 명맥을 잇는 대표 마당극패 '우금치'의 '청아 청아 내 딸 청아'가 공연됐다. 관객들은 뺨뺨의 입담과 심봉사의 능청, 심청이의 효심에 공연 내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내내 진행된 굴렁쇠굴

리기, 윷놀이, 투호 등을 체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과 토정비결에 타로운세까지 볼 수 있는 '운세 한마당'에도 방문객들이 몰려 연일 북적였다.

또 지난 8일부터 한옥촌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화전 선비세상 탐매행-매화, 봄을 부르라는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를 감상하려는 '상춘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새해 소망을 담은 '매화 그리기'와 자유롭게 즐기는 '매화 포토존'이 운영돼 방문객들은 매화의 정취와 함께 선비의 풍류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컨벤션홀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윈터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눈놀이장 '스노우존'과 전통무예장의 '별파카 UFO', '전통무예VR체험', '에어바운스'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화전과 윈터페스티벌은 이달 18일까지 계속된다.

선비세상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콘텐트로 가득 채운 '새해맞이 한마당'에서 많은 방문객이 연휴를 즐기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에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영천시장, 발로 뛰는 행정 추진으로 현장 행보 강화

###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 건의사항 현장 점검 추진

최기문 영천시장은 13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첫 행보로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 건의사항 현장 점검을 직접 점검했다.

이는 지난달 마무리된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통해 건의된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편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민원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최시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화산면 당지리 리도201호선 낙석방지책 설치' 등 3개의 건의사항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과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꼼꼼히 점검해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들이 토로한 고충은 현장에 나갔을 때 진정으로 공감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답을 찾는 진정한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중앙동 새해 인사회에서 건의된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추진한 바 있다. 최은하 기자

## 고령군,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지원사업 선정

### 사업비 15억 확보... 주거 세제경감 기대

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 1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건립 지원사업은 농업근로

자 주거 여건을 개선해 농촌의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거점형 2곳, 마을형 8곳으로 전국 10곳을 최종 선정됐다.

고령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다산면 노곡리에 전체면적 542㎡ 2층 규모로 30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객실 15개와 공동주방, 공동 세탁실 등

을 갖춘 기숙사를 신축한다.

고령군은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222명을 유치했다.

올해는 2월 16일 농가형 계절근로자 39명 도입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농가형 계절근로자 238명·공공형 계절근로자 68명 총 306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기숙사 건립으로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른 주거시설 제공의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봉화군, 2월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추진

### 13일부터 27일까지 농가 265호, 940두 대상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로 265호에서 사육되는 940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소 80%이상, 염소 및 반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5%, 돼지 91.1%, 염소 90%, 합계 95.3%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표값 9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작년 5월 충북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 봉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봉화군은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비 13억13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308동, 비주택 25동, 지붕개량사업 15동 등 총 348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일반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지원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와 우선지원 가구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새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상기 기자

## 의성군, 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작

의성군은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작을 알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보험 가입액의 90%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10%로 줄여준다.

먼저 주요 과수 4개 품목(사과, 배, 감, 딸)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4개 품목은 1558농가에서 1401ha를 가입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상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3년도 우리 군에 저은 피해,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업인 피해가 잦았던 만큼, 정성 들여 재배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오는 16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해 로마, 베네치아 등에서 국제교류 및 세계문화유산, 관광 홍보활동에 나선다.



경산자율방범대, 밤길도 안전해요

경산시 중방동 남·여 자율방범대는 지난 6일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합동순찰을 했다.

남·여 자율방범대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강변동로 및 경산시장 일대 골목과 보행자가 적은 어두운 우범지대, 폐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했다.

김도급, 서욱자 자율방범대장은 "설 연휴 동안 중방동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 취약지 등을 순찰하는 야간합동 순찰을 했다"며 "범죄예방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안전한 중방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문해근 중방동장은 "안전한 중방동을 위해 솔선수범해 활동해 주시는 남·여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방동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경운 기자



2024 문경시청씨름단 김보경 한라장사 등극

문경시 2024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문경시청씨름단 김보경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라장사(105kg이하)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남원택(장원특례시청)을 상대로 3-1로 누르며 개인 통산 8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이날 김보경은 16강전부터 현역 최다 한라장사(14회) 오창록(MG 새마을금고씨름단)을 2-1로 눌렀으며 8강에서는 박동환(부산갈매기씨름단)을 2-0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준결승전에서는 우승 후보 김무호(울주군청씨름단)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기세를 몰아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뿌려치기로 기선을 제압했고, 두 번째 판에서는 남원택이 어깨 걸어치기로 만회했지만 이어 김보경의 덧걸이와 왼배치기로 황소트로피를 안았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작년 12월 전국 최고의 시설 문경전하장사씨름장을 준공하고 동계훈련을 이어온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올해 첫 대회이자 명절 최고의 대회인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문경시청씨름단 김보경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울진대게 축제 '대게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

2024년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22일부터 25일지 후포항 일원에서

울진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후포항 일원에서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맛있는 대게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라는 주제 아래 울진대게와 붉은 대게를 비롯한 후포항의 다양한 수산물과 청정 울진의 농산물 등의 풍부한 먹거리와 동해의 낭만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임금수라상에 올랐다는 대게는 찬바람이 불어 야속이 찬다.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철이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는 2월부터 맛볼 수 있다.

울진은 대게 생산량 1위의 대게 원조 마을로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는 고려시대부터 대게가 울진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1539~1609)도 이곳으로 귀양 왔다가 대게가 많다고 해서 '해포(蟹浦)'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특히 울진대게는 7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품 대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대게 빨리 먹기 경주', '집계밭로 과자 먹기', '내 손으로 잡는 대게', '대게 경매' 등의 체험행사를 강화하여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홍보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부와 함께하는 KIT 만들기', '울진 마니아 요제', '대게 플래시몹' 등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료요트 승선 체험', '울릉 썬플라워 크루즈 투어' 등을 통해 동해의 낭만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축제를 찾은 모든 분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울진으로 오셔서 청정 동해와 금강송이 만들어내는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가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의 맛과 맛을 꼭 느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성주군, 202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미래형 친환경차 3대보급 예정

성주군은 13일부터 2024년도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구매 보조금은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성주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거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 등)를 지참해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대리점)에서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www.ev.or.kr)'을 통해 성주군에 제출한다.

군에서는 결격 사항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대리점)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한편 성주군은 작년까지 수소전기차를 총 6대 보급했다. 올해는 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과(☎054-930-6185)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들의 미래형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문경시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사업' 추진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문경시는 오는 2월 22일까지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스마트해썹(HACCP)이란 식품 제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해 주요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식품안전관리 내실화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마트HACCP 시스템 표준 모듈 및 자동화 설비 구축 △가열, 세척·소독, 급속

검출 등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스마트HACCP 시스템 표준 모듈 최적화 등이다.

HACCP 의무적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연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소규모 인종업체 1개소를 모집한다.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문경시 식품위생과(☎550-6777)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수 기자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민생경제 돌파구 마련

소상공인 지원센터 구축·지원

전통시장 현대적 변화로 활기



구미시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취업 지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지원, 함께 걷는 성공의 길

구미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해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관들의 지원 혜택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교육, 경영 및 금융(파산·회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집적화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티비티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도 지역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해 지역(로컬) 상표(브랜드)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시설 현대화사업과 골목축제, 브랜드 개발 등 경영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보증 한도를 확대(최대 5천만 원 → 7천만 원)하고 보증대상 신용등급 규정을 없애며, 다자녀 부양사업주 우대지원, 저신용자 대한보증(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를 전면 확대·시행한다.

■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기 현대적 변화로 소통

시는 젊은 층의 전통시장 유입, 낙후된 전통시장 환경 개선, 소비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젊은 층의 취향을 고려

한 다양한 먹거리·체험 거리·볼거리를 제공하는 야시장을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일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교육,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굿즈 개발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시장 벤치마킹, 전국의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용지매입비 포함) 141억 원을 투입해 인동시장 주차장(1810㎡, 3층, 66면), 선산봉황시장 주차장(1220㎡, 38면),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주차장(913㎡, 25면)을 연내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새마을 중앙시장, 산업 유통단지, 금오시장의 외벽, 화장실 배관 등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한다.

전통시장 화재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화재 예방과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 일자리 정책 지원을 통한 더 나은 미래로의 출발

상주,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시기 단축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른 기온 상승으로 과수 월동 병해충 발생 시기가 전년보다 4~6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동계 약제의 적기 살포와 철저한 과원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동병 방제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방제 방법에는 낙엽 후 과수원 바닥에 있는 병든 과실, 낙엽, 봉지 잔재물 등을 제거해 월동충을 없애주는 방법과 월동 병해충 방제약제인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배나무의 주요 해충인 주경배나무이의 경우 급년 예상 방제시기는 오는 16일~20일 경으로, 이 시기에 기계유유제를 12.5~17L/500L(30~40배) 농도로 살포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석회유황합제는 균체를 부식시키고 황화수소 가스를 소량씩 지속적으로 방출해 살균 효과를 내는 농약으로 배나무의 꽃봉오리가 부풀어올라 인편이 벌어지기 전 보메5도 농도로 살포하며, 미리 기계유유제를 살포했을 경우에는 2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시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 180여 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0여 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공급해 지역 고용안정을 앞장선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들에게 봉사를 겸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고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나눔과 봉사문화의 기반으로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15개 기관에 135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구미시 취업 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직자의 접근성 개선에 힘쓴다.

또 실업자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기반 마련과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 40여 명에게 요양보호사, 이·미용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구미형 일자리를 뒷받침할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생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선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의 선발 기회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생경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지원, 시장 활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으로 균형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민생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청룡의 힘으로 새로운 청도건설

2024

# 정월대보름

이뚱한마당

**일시** 2024. 2. 24. (토) 12:00~

※음면 풍물경연대회 13:00

**장소** 청도천 둔치

**주최**



청도군

**주관**

달집전승보존회